

연중 제 30주일(전교주일)
제 1독서 : 출애 22, 20-26
제 2독서 : 1데살 1, 5c-10
복 음 : 마태 22, 34-40

숲 정 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마태 22, 37).

강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이영우 신부 / 주현동 천주교회

매일의 미사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사제의 권고에 “천주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고맙기에, 미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응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받은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들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사제의 권고에 “천주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전하는 그것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권하고 전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만일 자기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스스로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미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사제의 권고에 “천주께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대답할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오라면, 차라리 누군가를 도와 주라면 쉽고 좋을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나라와 복음의 주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넓혀 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한 소명은 없는 것입니다.

전교주일인 오늘 하루를 보내며, 전교의 달인 10월 한 달을 보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리

“지금 필요한 것들”

위도에서 여객선이 침몰되었을 때, 벼라별 악성 소문이 많았다. 신문에 난 대로 읊기자면, 대형 사고들이 터지는 것은 대통령의 팔자가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사고가 났으니, 다음에는 땅 속에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떠돌았다. 그런가 하면, 땅 속이 아니라 소말리아에서 터질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이 나돌기도 했다. 불신과 불안 심리가 그런 말들을 만들어 낸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를 일러서 ‘액뽀(액때움)’으로 돌리며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거는 지혜를 가르쳤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액운(모질고 사나운 운수)을 다른 고난을 겪어 때우는(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업차피 당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새날을 기약하는 현명함이라 하겠다. 마음에 새길 만한 지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는 해도, 3백 남짓한 생명을 잃은 엄청난 재난을 액뽀로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희생된 생명과 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말이 되겠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관계장관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준법정신과 장인정신 등의 모자람도 채워야 한다. 卍

숲정이 산책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창세 26, 15-33)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난 이사악은 가까운 와디 그랄, 곧 물 없는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유목민 생활을 시작했다.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다. 그래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상대방 소유가 확실한 우물은 훔쳐서 메꾸어버리기도 했다. 그랄 골짜기에 친막을 친 이사악은 선친이 파 놓은 우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메꾸어진 것을 알고는 다시 파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새로 판 우물들 중에서 처음 두 개는 그랄의 목자들이 저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걸어 오는 바람에 부정적인 이름이 붙여졌다. ‘에섹’이라는 이름은 ‘분쟁’이라는 뜻이 있고, ‘시트나’라는 이름은 ‘반대’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블레셋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 오지 않아서 ‘넓은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뜻을 지닌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우물에 붙여졌다. 이사악은 이 우물의 이름에 걸맞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외치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 ‘르호봇’이라는 이 우물은 현재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와디 루헤베로 추정된다.

이사악은 다시 그랄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브엘세바에 도착한다. 이곳에 도착한 날 밤 이사악은 하느님을 만난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으로 소개한다.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한번 맺은 계약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표현을 되풀이하신다.

말하자면 이사악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그의 선친 아브라함 덕분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나중에 베델에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시어 하실 것이다. 이사악은 하느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에 제단을 쌓는다. 하느님의 발현과 제단 건립은 성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사악의 종들은 이 장소에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아비멜렉과의 조약이 성공적으로 끝나쳐졌을 때 이 우물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온다. 그리고 이사악은 이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맹세’라는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창세기 21장



유다 광야에 있는 우물

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린 양암 일곱 마리를 주고 아비멜렉에게서 이 우물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인정받은 데에서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사악이 브엘세바에 머물어 있는 동안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은 최대의 경의를 갖추어 이사악을 방문한다. 이에 이사악은 “내가 미워서 쫓아 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하고 통명스럽게 묻는다. 아비멜렉은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털어 놓는다. 아마도 이사악이 그랄에서 쫓겨난 후에도 계속해서 번영하는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사막에서 파는 우물마다 샘줄기가 터져 나오는 걸 보고 탄복하게 된 것 같다. 어쨌든 이사악은 과거를 잊고, 아비멜렉과 그 일행에게 주안상을 걸게 차려 나와 함께 먹고 마신 다음, 그 이튿날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 메시지는 이사악은 하느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덕분에 이방인의 왕으로부터 왕대접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조상들을 모신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도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왕적인 신분과 명예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하느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는 사람이면 이사악처럼 어떤 고난도 헤쳐 나갈 용기를 가지며 어떤 권력 앞에서도 이사악처럼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축! 확장 이전
결혼 예물 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목주반지 제작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미르타)
전동 상당 사거리
☎ 82-9005

1급 자동차 정비공장
군산공업사
레카차 주야 대기
김 동 석(리우렌시오)
김 금 자(마리아 고레띠)
군산 소룡동 세무소 뒤
☎ 63-9302~4

잠깐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11. "의학과 생명"

의학의 전통적인 목표는 인간의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통한 수명 연장에 있다. 즉 의학 기술은 그 내용상 인간 생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유지, 증진시켜 주는 가장 생명적인 학문이며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수세기 동안 의학이 이룩한 업적은 놀라울 정도다. 의학의 이 같은 업적은 인간 생명이 고귀한 것이며, 따라서 그 생명현상을 해치는 어떤 일도 생명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의학 분야에 새로 개발되어 쓰이고 있는 몇 가지 기술들, 예컨대 생명을 저지시키는 인공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 생명 전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장기 이식 기술과 이에 관련된 사망 시간의 판정, 생명의 가공 내지는 변질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 그리고 일종의 생명 창조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인공 수정 내지는 시험관 아기 탄생 기술 등은 인간 생명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저들 기술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생명체인 수정란이나 배아 또는 태아를 없애거나 실험적으로 조작하는 일뿐 아니라 살아 있는 환자의 생명을 끊는 반생명적인 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학 기술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다른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 가톨릭 윤리관에 바탕을 둔 생명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의학이 본연의 생명적 학문과 기술로 존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대전 엑스포 바티칸관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구 소식

※ 전교주일 1차, 2차 헌금: 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1. 가톨릭 문우회 문학 잔치: 11월6일(토) 저녁7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연사-천이두 선생.
2. 교구청 직원 소풍: 10월29일(금) 교구청 휴무.
3. 사무장, 사무원 피정: 10월26일 오후2시30분-27일 오후, 천호 피정의 집, 출발-26일(화) 오후2시 가톨릭센터, 참가비-1인당 30,000원.
4. 사랑의 다리 후원회 1일 피정: 11월1일(월) 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지도-이창섭 신부, 접수-10월25일까지, 회비-5,000원, 문의 (0652)84-5290.
5. 도시, 농촌 간 사랑의 나눔 잔치: 10월29일-31일, 전통 성당 마당, 농산물 출품 신입-10월25일까지, 문의 85-2935.
6. 전주교구 가톨릭 교수연합회 창립총회: 11월5일(금) 오후3시 가톨릭센터.
7. 혼인강좌: 10월31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0,000원.
8.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0월29일(금) 밤11시 전통 성당, 강사-서석희 신부.

※ 축! 영명: 28일(성서문과 유다) 박중신, 한봉섭, 서정현, 장상호, 이완재 신부님.

● 성소모임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수녀회: 10월31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0652)78-0094.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식품 공해

유산균 음료는 화학 물질이 첨가되어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미숫가루, 식혜 등 우리 전통 음료를 마시는 지혜를 가집시다.

요심이 (1052) 김명오

문시아가 동해바다에 핵 폐기물을 버리고...

독일의 어느 사장이 대통령에게 무례한 편지를 보내왔어도...

여당 대변인은 말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지요?

여당대변인은 야당목만 잘 하면 되는거야!

초대합니다!

10월31일 순창 본당의 날!
오리지널 도토리묵(성당 산 도토리), 찹쌀 동동주(성당 논 무농약 찹쌀) 모두들 드시러 오세요.
순창 성당 주임신부 권이복
순창 성당 사목회장 정준원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때: 10월 31일 오후 2시-5시
• 곳: 삼량진 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성서(신구약 합본)

알림

유기 농업, 우리밀 살리기 운동 등 생명의 먹거리 생산에 힘써 온 가톨릭 농민회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자 합니다. 먹거리(농산물)상담, 공급.
☎ (0652) 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가톨릭 농민회 지도신부 권이복

추! 개업
모아 종합 화장품
BYC, 빅맨, 라제리 등 일상용품 취급
성열호(사무엘)
이정자(에스텔)
궁전아파트 옆 팽나무 골목
☎ 232-0704

우리 온돌 전기 패널
전북총판
· 우리 온돌은 에너지 저금통입니다.
· 2월치 연료로 3일을 뺍니다.
· 24시간 따뜻합니다.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신대산업 ☎ 78-1363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병풍, 가리개, 족자 전문
동양자수
김용섭(마르띠노)
응은숙(모니카)
대야 천주교회 상가
☎ (0654)451-3928
(0654)451-6347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전교 주일**: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1. 사목회 정기 총회: 오늘. 장엄미사 후, 지하 교리실. 사목회 회장단, 감사, 고문, 각 분과 부장, 차장, 제대회장, 반회장께서는 필히 참석 바람.
2. 사무장, 사무원 피정: 26~27일, 26일 오후부터 27일 오후까지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3. 제대회 월례회: 26일 저녁 8시.
4. 금주 모임: 빈첸시오(28일, 전 10시30분)
5. 금주 청소: 인후 10, 11반. 차주 청소: 동진 1, 2반.

☐ **지난주 봉헌금**: 897,170원 ☐ **교무금**: 929,00원

*** 전통**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12 사목회장 이 명 행

1. **금주**: ① 전교 주일 2차 헌금 있음 ② 성가리아 교미사(후 2시) ③ 사목회 신·주 임원 이·취임식(공식미사 후) - 신·구 임원 전원 참석 바람. ※ 신임 사목회 임원 명단 - 회장: 이명행(요셉) 부회장: 주환(다두), 윤림자(말가리다) 총무: 김동욱(마태오) 선교: 노병섭(프란치스코) 전례: 박창윤(안셀모) 교육: 김자영(마누엘) 홍보: 강신일(베드로) 재정: 소영준(다두) 청수년: 김홍석(다니엘) 사회복지: 손취부(요셉) 여성: 백홍자(안나) 구역: 권영래(테레사) 애원: 최병래(안토니오) 감사: 장금태(프란치스코), 김관식(율리오).
2. 사무장, 원 교구 피정: 26일~27일(천호 피정의 집)
3. 교구 도·농간 나눔의 행사: 29일~31일(본당 마당)
4. 자모회 소풍: 11월 1일 내장산. 회비: 15,000원. 참가자는 사무실에 접수 바람. ☐ **지난주 봉헌금**: 1,846,330원
5. 구역별 가정 방문: 11월부터 본당신부(생영세자, 전입자 대상)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전교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2. Pr간부 교육: 26일(장소-본당. 시간-오전 14~16시)
3. 사무장, 사무원 피정: 26~27일 천호.
4. 병자 봉성체: 29일(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유아 세례: 30일 오후 6시30분.
6. 회합: 해설자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제대회-28일 오전 10시.

금주 전례: 해설-황단규, 독서-이갑규 씨 부부
 봉헌-이창기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안철진 씨 부부
 봉헌-윤재원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62,110원 ☐ **교무금**: 813,5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상 근

◎ **오늘은 전교 주일**: 1인 1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1. 위령의 날 합동 미사 예를 집중: 2일 10시 30분 소리개재.
2. 사목 계획서 제출: 각 분과별 계획서와 결산 예산안 31일까지.
3. 병자 봉성체: 28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 바람.
4. 가정 방문: 29일 1-4반 전 9시, 2-1반 후 2시30분.
5. 사무장 사무원 피정: 26일~27일 천호 피정의 집.
6. 성체회 임원 선출: 회합-김계봉, 부회장-한영석, 김성희, 총무-장성재. 회합은 매월 둘째주 공식미사 후.
7. 회의: 성소 후원회와 27일 어머니미사, 율트레아-다음 주일.
8. 야외 단합미사: 10월 26일(10-4구역) 동산, 주천. 10시 출발.
9. 컴퓨터 386, 486, 도트 프린터, 레이저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 이익금은 건축 헌금. 내건상사 82-7166 윤옥근.

☐ **지난주 봉헌금**: 1,349,530원 ☐ **교무금**: 1,540,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등 욱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및 전교의 달.**

◎ **축! 영명**: 본당신부님(28일)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1. **오늘은 전교 주일**: 2차 헌금.
2. 모임: ① 율트레아-30일(토) ② 성모회-다음 주일
3.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 다음 주일.
4. 제대꽃 봉헌: 오칠규-5만원, 양봉철-3만원.
5. 감사: 초등부 가을 소풍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6. 사무장 피정: 26일(화)~27일(수)
7. 차주 전례: 해설-김영진, 독서-①한동욱 ②이소남
 봉헌-이명수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2,700원 ☐ **추석 헌금**: 7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예비자 입교식: 오늘 오전 9시 30분 - 축하합니다.
2. 꾸리아: 오늘 미사 후.
3. 가정 방문: 26일(화) - 화산2(A) 27일(수) - 금하, 28일(목) - 동남삼정, 29일(금) - 동진.
4. **오늘은 전교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5. 봉성체: 30일(토) 오전.
6. 사목회 피정: 31일(일) 미사 후.
7. 영세자 모임: 11월 7일(일) 미사 후.

금주 전례: 이완자, 정준성, 독서·봉헌-이미희, 박태희.
차주 전례: 김희숙, 강희연, 독서·봉헌-정진자, 서동호.

☐ **지난주 봉헌금**: 578,750원 ☐ **교무금**: 1,03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영 웅

◎ **연중 제 30주일! (전교 주일) 2차 헌금 있음.**

1. 반장회: 10월 31일(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2. 법석규 신부님 특별 초청 미사: 10월 31일(다음 주일)
3. 가정 방문: 10월 27일(수) 27반(A반, B반), 29일(금) 6반, 7반.
4. 사무장 피정: 10월 26일(화)~10월 27일(수)
5.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 가을 소풍: 10월 31일(다음 주일) 오전 9시. 장소-관촌 사선대(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6. 교무금: 전년도 분, 금년도 분 미수된 분은 미루지 말고 납부 바랍니다.
7. 감사 헌금: 광길순(태필라) 자매님 30,00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96,100원 ☐ **교무금**: 756,000원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지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설

◎ **오늘은 연중 제 30주일입니다.** (전교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1. 자모회 야유회: 10월 25일(월)
2. 꾸리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3. 유아 세례: 10월 31일(일) 오후 4시.
4. 청년 레지오 회합: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사 안내: 금주-예언자의 모후, 승리의 여왕 차주-그리스도의 어머니, 즐거움의 연유

☐ **지난주 봉헌금**: 1,471,930원 ☐ **교무금**: 1,55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연중 제 30주일(전교 주일)**

1. 전교 주일 2차 헌금: 많은 협조 바람에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 합시다.
2. 다음주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3. 구역, 반 미사: 3구역 1반, 2반.
4. 가정 방문: 11월부터 시작(수요일, 목요일) 3반차.
5. 꾸리아: 11월 7일 미사 후.
6. 레지오 마리아 교육: 11월 7일 9시~10시 20분.

☐ **지난주 봉헌금**: 733,200원 ☐ **교무금**: 1,387,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 **사목회장**: 엄익도(시몬)님 피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전교 주일: 오늘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자모, 성모, 성심회 단합 대회: 26일(화) 오전 8시 출발. 26일(화) 미사는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3. 사무장, 사무원 연수회: 26일(화)~27일(수)
4. 가정 방문: 27일(수) 오후 2시, 삼호 1반-4반.

차주 모임: 사목회, 요셉회, 신축 헌금 봉헌액 - 1,250,000원
금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분성제 ②신보경
 봉헌 안내: 최계준 부부, 순효성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정진호 ②김홍숙
 봉헌 안내-이삼춘 부부, 유준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94,800원 ☐ **교무금**: 1,665,000원